공간과사회 2024년 제34권 2호(통권 88호): 184-220
http://dx.doi.org/10.19097/kaser.2024.34.2.184

일반

변주하는 공간적 권력*

‘노키즈존’의 확산 및 ‘맘충’ 담론을 사례로

Spatial power in disguise: ‘No-Kids Zones’ as a mask for propagating yet covert exclusion of mothers

채상원** · 임진희***

본 연구는 이른바 ‘노키즈존’을 사례로 일상 공간을 매개로 흐르고 작동하는, 따라서 쉽게 파악하기 어렵거나 또는 간과되는 형태의 공간적 권력의 등장 및 변주에 관해 논의한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는 카페 및 식당 등 사적으로 소유된 공공 공간을 중심으로 ‘노키즈존’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공간들은 업주의 재량에 따라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데, 구체적인 금지의 기준은 개별 공간에 따라 상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 공간이 아닌 ‘노키즈존’의 등장 및 확산을 하나의 공간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일상을 규율하고 통치하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키즈존’은 CCTV, 공간설계, 여론조사 등 전통적인 방식 외에 온라인 공간의 혐오 표현 및 담론과 결합해 개인들의 일상을 통치한다. ‘노키즈존’의 권력은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맘충’과 같은 혐오 표현이 일상의 배제적 공간 실천과 결합해 미시적인 차원에서 그 효과를 드러낸다. 둘째, 권력이 경험되는 측면에서 ‘노키즈존’의 공간적 권력은 해당 공간의 경계를 넘어 외부를 향해 행사된다. 이러한 공간적 권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여성 양육자들은 아이를 동반한 외출에서 과도하게 스스로의 행동을 규율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노키즈존’의 존재로 인해 (준)공공 공간 전반에서 행위의 반경 및 이동성이 위축된 모습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87478). 본 연구가 출간되기까지 아낌없는 용기와 응원, 영감을 주신 여성 양육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피드백을 주신 메아리, 은조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본 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지리환경학과 박사과정(DPhil student, School of Geography and the Environment, University of Oxford), 교신: sangwon.chae@ouce.ox.ac.uk

***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지리환경학과 박사과정(DPhil student, School of Geography and the Environment, University of Oxford)

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사적으로 소유된 공공 공간, 온라인-오프라인 연속체 등을 매개로 개인의 일상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혐오와 차별,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주요어: 공간적 권력, '노키즈존', 혐오 표현, 온라인-오프라인 연속체, 공공 공간

1. 서론

본 연구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확장되고 있는 이른바 '노키즈존(No-Kids Zone)'의 사례를 통해 일상적 공간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변주하는 권력 및 통치의 문제를 논의한다. 연령을 기준으로 특정 공간에 대한 아동 전체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은 카페 및 식당을 중심으로 지난 수년간 점차 확산하고 있다. '노키즈존'은 그 명칭 및 사회적 정의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특정 행위가 아닌 연령을 기준으로 일정한 인구 집단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논쟁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노키즈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러 쟁점들에 대한 입장에 따라 찬성/반대로 양극화되어 사회적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 '노키즈존'의 형성 동학 및 공간적·사회적·정치적 함의에 대한 유의미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관련한 뉴스 기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개인들의 주장, 또는 학자 등 전문가 집단의 비평은 다양한 갈래로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학문 분야도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짚고 넘어갈 만하다.[1] 이러한 와중에 '노키즈존'과 같은 공간적

1) '노키즈존'을 다룬 뉴스 기사 및 개인들의 주장은 검색 엔진들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전문가 집단의 비평은 주로 뉴스 기사에 등장하는 인터뷰 또는 칼럼이 다수를 이룬다. 예외적으로 오찬호(2018), 엄기호(2014) 등의 학자들이 그들의 저서에서 '노키즈존'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긴 하지만 사회학적 분석의 차원으로는 나아가고 있지 않으며, 그들의 논의 역시 아동이나 여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미라(2018)는 한국 사회의 도덕성에 관해 논한 석사논문에서 한국 사회의 논쟁적 사안 중 하나로 '노키즈

배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노시니어존', '노교수존', '노래퍼존', '노20대존', '노아재존', '노유튜버존' 등 다양한 양상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2] 이러한 현상은 찬성 혹은 반대의 문제이거나, 평론의 대상일 수도 있으나, 나아가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혐오, 배제의 실천들 및 이에 얽힌 미시적 권력관계들이 일상의 공간을 통해 표현 및 매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노키즈존'은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해 본 연구는 일상에서 작동하는 공간적 권력 및 통치 합리성에 주목한다. 관련하여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론, 통치성 논의에 영향을 받은 일부 연구들은 개인의 행동보다는 특정한 공간을 통제하는 권력의 등장에 주목해 공간적 통치성(spatial governmentality) 개념을 논한 바 있다. 권력이 개개인의 행위를 규율하는 광범위하고 또 규범화된 방식, 통치의 기술을 논의하는 것이 기존의 통치성 개념이라면, 공간적 통치성은 특정한 공간의 등장, 그리고 해당 공간을 통해 권력이 행사되는 양상을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권력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집단 및 행동을 배제하는 공간을 만듦으로써 '옳은' 행동과 '그른' 행동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또는 바람직한 것으로 그려지는) 주체(appropriate subjectivities)'를 만들어 낸다(Huxley, 2006; Merry, 2001; Perry, 2000). 이러한 현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사적으로 소유된 공적 공간(privately-owned public spaces)으로, 해당 공간들에서는 국가나 시장이 다양한 감시기술을 동원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양상이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관련하여 쇼핑몰, 게이티드 커뮤니티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논의된

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역시 '노키즈존'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을 정량화하여 보여주기 위한 사례였을 뿐이다. 최근 오수경 외(2023)는 트위터라는 플랫폼상의 '노키즈존' 관련 담론을 통해 '노키즈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괄한 바 있으나, 전반적인 논의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기존의 여론조사,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난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을 반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2) ≪연합뉴스≫, 2023.06.06. ""세계 최저 출산율에 노키즈존?"…CNN, 타당성 논쟁 조명"; ≪파이낸셜뉴스≫, 2023.09.27. "노00존, 남일이라고? 안전지대는 없다 [테헤란로]".

바 있다(Robins, 2002; Voyce, 2003; 2006).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공간적 권력과 일상 공간의 통치에 주목한 지리학적 연구는 최근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노키즈존' 확산이 보여주는 것처럼 변화하는 사회정치적·공간적 현실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고 변주하는 권력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보다 세분화되고 치밀해져 가는 일상 속 권력관계의 양상 및 개인의 행위를 규율하는 새로운 방식과 영역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리학 분야에서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았고, 관련 논의와 개념들 또한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권력을 행사하고, 통치 합리성을 (재)생산하는 행위자를 국가나 기업으로 국한하지 않고 국가나 기업만큼이나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적 행위자들을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Garmany, 2010; Rose-Redwood, 2006). 또한, 기존 연구들이 국가 기관, 도시계획 및 정책, 기업 등을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관점을 (의도치 않게) 확대·재생산할 가능성을 노정하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는 권력이 규범화되고 (재)생산되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영역으로서 일상 및 개인의 경험에 주목한다(Demetriou, 2016).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어져 온 학교, 병원, 감옥, 쇼핑몰 등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한 공간을 이용하여 개인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권력을 넘어, 현대인들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일부가 된 사이버 공간을 통해 공간적 권력이 매개되고 작동하는 양상을 다룬다. 그중에서도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의 상호구성을 드러내는 온라인-오프라인 연속체(online-offline continuum) 논의를 참고해 본 연구는 사이버 공간이 동떨어진 가상의 현실이 아니며 "우리가 정치를 행하고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존재케 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침"(Graham, 2013: 177)을 드러내고자 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신조어와 혐오 표현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형성된 담론이 일상의 배제적 실천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을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키즈존'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생산되고, 구성되며, 규범화되는가? 둘째, '노키즈존'을 매개로 하여 등장한 권력은 어떠한 모습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노키즈존'의 확산은 3가지 요소—즉, 사회성(sociality) 및 공공성(publicness)이 구성되는 일상 공간의 특성, 다양한 개인의 교차성을 통해 드러나는 권력관계, 온라인 공간을 통한 권력관계의 재생산—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인 것처럼 보이며, 이는 공간의 사회정치적·문화적 구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적으로 소유된 공공 공간의 사례에 주목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카페, 식당 등 상업적 공간들이 대다수 개인들의 일상적 지리의 대부분을 구성하며, 타인과의 직간접적 상호작용의 구체적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들은 상업적 기능을 넘어 도시적 삶의 양상, 일상의 문화 정치를 구성하는 주요한 무대이다(Bell, 2007). 따라서 '노키즈존'의 공간적 권력에 대한 연구는 일상적 공간이 개인들의 이동(매장 출입 등)을 제약하는 방식과, 그러한 제약을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인 사적으로 소유된 공공 공간에서 환대받는 개인의 이미지가 구성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공간적 권력을 다루는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일상적 공간을 매개로 권력이 행사되는 양상 및 온라인-오프라인 연속성에 주목한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후 3절에서는 사례 및 연구 방법을 소개한다. 본론인 4절과 5절에서는 '노키즈존'과 온라인상 혐오 담론을 통해 구성되는 일상적 배제의 공간들의 등장 및 해당 공간을 통해 작동하는 권력의 양상과 탈정치화 문제를 논의한다. 마지막 6절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며, 다양한 권력 불균형이 상호 교차, 재생산, 공간화되는 정치적 장으로서 일상 공간, 개인의 경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2. 일상 공간을 매개로 한 권력과 온라인-오프라인 연속체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통치 및 권력에 관한 논의의 맥락에서(Barry et al., 1996; Dean, 2010; Lemke, 2002; Rose, 1999), 지리학자들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간이 갖는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Crampton & Elden, 2007; Huxley, 2006; 2008). 이들 중 본 연구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직접적 규율이 아닌 공간에 대한 통치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사회적 질서의 등장을 지적하는 공간적 통치성 논의를 참고한다(Merry, 2001; Perry, 2000; Robins, 2002). 관련 연구들은 특정 공간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개인들 및 행위들을 배제함으로써 "특정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통제되지 않은 공간에 남겨두는 시스템"(Merry, 2001: 17)을 만들어 내며, 자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권력의 등장을 지적한다. 즉, 공간적 통치성 논의에서 주목하는 권력은 특정한 통치 프로젝트에 맞게 사람 및 물건의 사회공간적 배열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통치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권력은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Choi, 2017; Huang et al., 2019; Huxley, 2006), 본 연구는 사적으로 소유된 공공 공간에서 작동하는 공간적 통치, 권력의 작동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이른바 준공공 공간(quasi-public space)[3]들은 2000년대 초반 소비주의가 부상한 이래로 인간의 신체와 행위를 규율하는 다양한 공간적 통치의 기술들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장소가 되었으며, 많은 학자들이 공공성의 쇠퇴라는 관점에서 관련 현상을 논의한 바 있다(Kohn, 2004;

3) 본 연구에서 사적으로 소유된 공공 공간과 준공공 공간은 같은 의미로, 사적 소유 및 관리의 대상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공간들을 일컫는다. 해당 공간들은 특정 사회의 문화가 체화되고, 공공의 감각이 형성되는 수행적 공간(performative space)이라는 의미에서 공공 공간의 성격을 가진다(이병준·석영미, 2014).

Mitchell, 1995; Németh & Schmidt, 2011; Voyce, 2006). 쇼핑몰, 게이티드 커뮤니티 등의 공간들과 해당 공간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감시의 기술들이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Voyce(2003)에 따르면, 쇼핑몰에서 공간적 통치성은 소위 교양 있는 소비자로 행동하지 않는 개인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마찬가지로, 게이티드 커뮤니티들은 사적인 안전 및 보안 장치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공간이다(Pow, 2013; Robins, 2002). 즉, 두 사례 모두 다수의 개인들에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비주의적·자본주의적 통치의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개인 또는 집단들에게 차별적으로 열려 있는 공간들의 등장을 보여준다. 이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공간적 권력은 공간 디자인 등을 통해 더욱 섬세한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하는데, 관련해 Allen(2006)은 베를린의 한 상업적 광장을 사례로 '분위기의 권력(ambient power)'을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기존 논의들에 더해, 본 연구는 공간적 권력에 대한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일부 연구들이 국가가 아닌 행위자들이 행사하는 권력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지만, 여전히 통치 및 권력에 관한 학술적 관심은 국가 기관들의 역할에 대부분 머물러 있다(Garmany, 2010; Rose-Redwood, 2006). 이러한 경향은 해당 연구들의 비판적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통치하는 자들의 관점, 특히 국가의 관점을 지배적인 것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쇼핑몰이나 게이티드 커뮤니티 등을 사례로 한 공간적 통치성 연구들 역시 같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해당 연구들은 분석의 대상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와 더불어 가장 강력하고 분명히 정치적인 또 다른 실체인 시장으로 대체하고, 확연히 눈에 드러나는 공간에 주목할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치 합리성은 통치의 주체로부터 대상에게로 일방향적으로 전달되고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매개되고 행사되는 다양한 결절점들을 통해 일상에서 체화되고, 재생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푸코의 권력론의 영향을 받

은 연구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형태의 권력을 밝히기 위한 카테고리로써 권력이라는 개념을 활용”(Koopman & Matza, 2013: 832)해야 한다. 이는 통치와 권력의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미 두드러진 정치적 실체들인 국가 및 시장 이외에도 명확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 등한시되지만 특정한 형태의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함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사례인 ‘노키즈존’을 통해 보면, 특정한 대상을 배제하는 공간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영향을 행사하는 행위자는 국가나 기업이 아니라 개별 상점의 소유자/운영자 및 인터넷상의 개인들이다. 전자는 아동의 상점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주체이고, 후자는 해당 공간들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공간적 윤리와 규범 등에 관한 담론을 일반화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Odysseos et al.,(2016)이 지적한 것처럼 기존 연구들은 “명백히 정치적인 영역이 아닌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통치 및 저항의 실천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의 필요성”(151)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지리학 연구들은 여전히 국가 기관들이 도시계획 등 정책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문제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Certomà, 2015; Moisio & Luukkonen, 2015; Pow, 2018; Raco & Imrie, 2000; Roy, 2009; Tulumello, 2016; Uitermark, 2005). 물론 이러한 논의들은 통제된 자율성(regulated autonomy) 안에서 작동하는 공간 및 행위자들을 만들어 내는 도시 거버넌스의 통치 기술, 메커니즘을 밝혔다는 점(Rose & Miller, 1992: 173)에서 의미가 있으나, 분석의 대상 및 범위가 제한적이며 마찬가지로 이미 명백히 권력을 가진 국가의 관점을 재생산할 위험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간적 통치성을 논의한 기존 연구들 역시 이러한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Huang et al., 2019; Merry, 2001; Robins, 2002).

그러나 통치 합리성은 국가 기관 또는 시장 권력에 의해 (재)생산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일상을 통해 직접 살아내고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치에 관한 “현장 연구에서 데이터 수집은 흔히 시민들을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선출된 혹은 지명된 정치적 대표들이 아니라 시민들 자체에서 출발해야 하

며”(Ettlinger, 2011: 547) 그들의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미시권력과 상향적 분석(ascending analysis)을 강조한 푸코의 문제의식과도 공명한다. 실제로 일상(the everyday)은 권력이 규범화되고, 재생산되며, 동시에 문제화되기도 하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공간이다(Demetriou, 2016). 이러한 점에서 ‘노키즈존’의 공간적 권력에 관한 분석은 일상 공간들에서 출입을 금지당한 개인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본 연구가 주장하는 것처럼 ‘노키즈존’의 경우 아동에 대한 출입 금지, 아동혐오라는 문제의식을 넘어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로 분석의 초점이 옮겨가야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배제되는 경험, 즉 공간적 권력의 일상적 실천이 통제의 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공간에 대한 인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통치 대상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공간적 권력이 갖는 경계의 모호성을 드러냄으로써 특정한 공간적 경계 내에서 작동하는 권력에 주목했던 기존 논의를 반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여성성이 사적 영역에 한정되고 따라서 도시 공간 및 일상이 젠더화됨을 지적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Bondi, 1998; Bondi & Domosh, 1998; Booth et al., 1996; Kern, 2021; McDowell, 1999; Peake & Rieker, 2013). 특히, “여성의 신체가 여전히 도시 문제의 원천 혹은 징후로 간주되고 있다”(Kern, 2021:5)라는 이들의 비판은 나아가 사회적 혹은 도시적 문제의 해결 및 발전을 명목으로 여성의 신체와 행위를 통제하고자 하는 일상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성 역시 다양한 이성애 중심적 실천들이 구성되고, 규범화되며, 유지되는 매우 정치적이며 젠더화된 개념 중 하나이며, 모성 지리학(maternal geographies)이라는 갈래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Johnson & Johnston, 2019). 해당 논의들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는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여성, 특히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의 신체는 공공 공간에서 언제나 가시화되며, 쉽게 문제화되고, 따라서 일상적 통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처럼 사적인 영역을 정치화하고 여성의 신체 및 행위를 규율하는 데 있어 공간이 갖는 역할

을 밝힌 페미니스트 지리학 논의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도 공명한다. '노키즈존'이라는 배제적인 일상의 공간 실천이 아동을 타깃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의 주 양육자인 여성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일상에서 공간적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함에 있어서 온라인 담론의 역할 및 온라인-오프라인 연속체 또는 상호구성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한다. 개인의 일상을 통제하고 새로운 형태의 오프라인 공간 형성을 위한 매개체로서 디지털은 인문지리학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널리 연구되고 있다(Ash et al., 2018: 25).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 중에서도 새로운 오프라인 공간의 등장 및 공간적 권력에 대한 연구는 디지털의 기술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 공간적 지식 및 재현에 있어 GIS 등 기술의 역할(Elwood, 2006; Elwood & Leszczynski, 2013),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법이자 공간으로서 디지털 기술 및 사이버 공간(Hine, 2008; Leszczynski, 2019), 스마트 시티의 등장(Argento et al., 2020; Törnberg & Uitermark, 2020; Vanolo, 2014) 등에 관한 연구가 그 예시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국가와 기업들이 그들의 물리적 공간을 확대하고 특수한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공간을 전용하는 방식 및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스마트 시민들(smart citizens)' 등 새로운 주체의 형성을 분석한다는 의의가 있다. 반면 기술로서의 디지털이 아닌 온라인 담론과 오프라인 공간, 특히 일상 속 미시적 공간의 상호구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온라인 담론과 오프라인의 사회정치적 현상을 교차하는 연구가 주로 선거나 코로나19 등 확연히 눈에 띄는 현상에 대한 논의(금혜성·송경재, 2013; 김경민·정리나, 2023; 설선미·배정아, 2021; 장휘·송경호, 2021) 또는 오프라인 현상에 대한 여론의 지표로서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을 분석(장윤재, 2023)하는 데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노키즈존'을 통한 공간적 권력이 젠더와 관련된 온라인 담론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온라인상 젠더 담론 및 젠더화된 공간으로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초창

기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난 여성 대상 폭력성(김수아·최서영 2007; 김수정·김예란, 2008), 이분법적·상호 배타적으로 형성되는 성별 정체성(김리나, 2017; 김수아·최서영, 2007), 남성 위주 플랫폼에서 확산되는 반페미니즘 정서(구지혜·김민철, 2023) 등을 다루었다. 이러한 논의를 더욱 확장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페미니스트 디지털 지리학(feminist digital geographies) 관련 문헌들에서는 온라인 공간의 젠더화를 논의하며 사이버 공간은 물론이고, 이러한 공간을 생성 및 유지하는 과정과 기술 자체가 오프라인의 불평등한 젠더 권력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Elwood & Leszczynski, 2018; Elwood, 2021). 한편 본 연구와 가장 큰 연관이 있는 온라인 젠더 담론은 바로 호명의 정치학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된장녀', '김치녀' 등의 이름으로 등장한 여성 대상 호명은 여러 의의를 갖는다. 객관적·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개인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여성을 일반화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한다는 점,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동을 여성(만)의 문제로 환원한다는 점, 여성가족부 및 여성주의자에게 겨냥되었던 비난이 여성이라는 성별 정체성을 가진 모두에게 확대되었다는 점, 여성들의 자가 검열과 '나도 여자지만'으로 시작하는 선 긋기를 유발한다는 점 등이다(김수아, 2015; 김수아·김세은, 2016).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담론이나 혐오 표현이 통용되고 재생산되는 과정, 그리고 담론을 만들어 내는 개인과 영향을 받는 개인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수가 너무 많고 산재해 있다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뿐 아니라, 다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자들이 비공개 계정으로 소통하고 일부 플랫폼은 성별에 따라 가입자를 제한하므로 외부자의 관찰이 쉽지 않다는 실질적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의 젠더 담론과 혐오 표현이 오프라인에서 재현되는 방식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는 소통 환경으로서 온라인의 특수성 때문일 수 있다. 온라인에서의 소통은 익명성, 웹사이트 사용자 간의 유대감과 친밀함을 기반으로 표현의 과격화와 내집단(in-group) 편향, 그리고 심사숙고의 과정 없이 빠르게 합의에 도달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나은영·차유리, 2012; 박근영·최윤정, 2014).

반면 오프라인의 경우, 대화 참여자의 성별, 나이, 발화 환경 등에 따라 이와 같은 특징이 희석되거나 변화할 수 있으므로 같은 수준의 혐오 표현이 사용되는지, 그 영향은 어떠한지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젠더 담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실천되고 있다. 남성 위주 웹사이트를 통해 확산된 페미니즘 음모론과 그에 기반한 모 편의점과 게임사 대상 불매운동,[4] 온라인상에서 결집한 여성들의 오프라인 시위 및 추모행사(김리나, 2017; 김해원 외, 2018), 성별에 기반한 혐오 단어가 오프라인의 언론보도에서도 사용되는 현상(김수아, 2015; 김수아·김세은 2016)이 이를 방증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혐오 표현 및 담론들에 대한 대다수 연구가 온라인 공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지적되어야 한다. 관련 연구들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례 연구가 온라인 공간에만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다층적이고 세밀해지고 있는 혐오의 양상, 실천들이 온라인에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노키즈존'의 등장과 확산 역시 온라인에서 형성되는 젠더 담론과 혐오적 표현이 오프라인의 공간을 상호구성하는 한 양상임을 주장한다.

즉, 본 연구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만들어 낸 담론들이 특정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들의 행위, 공간과 개인의 관계, 공간에 대한 상상 혹은 기대 등을 특정한 방식으로 유도하는 데 있어 효과적임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해 보면, 혐오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담론과 분리 및 배제를 기반으로 하는 오프라인 공간의 상호구성을 통해 일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행위 및 이동성의 범위가 구조화되는 모습이 발견된다. 예컨대 공공 공간에서 아이를 동반한 여성들의 모습에 대한 온라인 담론은 '노키즈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의와 더불어 여성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행위를 끊임없이 자기검열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노키즈존'이라는 일상 속 배제의 공간이 구성되는 데 일조하고 있

4) ≪중앙일보≫, 2023.11.02., "손 모양 하나에 남혐 몰렸다 … GS 불매에 靑청원까지"; ≪중앙일보≫, 2023.11.26., ""저거 남혐 아냐?" 업계 발칵 뒤집은 '집게 손가락' … 넥슨 사과".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키즈존'의 사례를 통해 사적으로 소유되는 공공 공간, 온라인-오프라인 연속체 등 여전히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은 일상 공간들에 내재된 권력관계에 주목함으로써 변주하는 공간적 권력의 양상을 포착하고자 한다.

3. 사례 소개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노키즈존'의 등장 및 확산을 사례로 이와 같은 배제적 일상 공간이 구성되는 과정 및 이와 관련한 개인들의 경험을 분석한다. '노키즈존'은 카페 및 식당과 같은 일상의 준공공 공간들을 통해서 산발적이고 개별적인 형태로 등장하며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노키즈존'이 갖는 중요한 특징은 임의성이다. 즉,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사적으로 소유된 공공 공간이라는 점 외에 이러한 공간들을 아우르는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출입이 금지되는 대상 및 기준 등 관련 지침의 구체적 내용 및 도입 여부 역시 업주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같은 '노키즈존'이라 하더라도 개별 업장에 따라 세부 기준이 상이하다. 지리적 분포 및 공간적인 특징도 마찬가지이다. 지리적 분포의 경우 '노키즈존'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공간적 특성의 측면에서도 '노키즈존'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침을 안내하는 문구가 입구 등지에 작게 비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고, 임의적이라는 측면에서 한 공간의 '노키즈존' 지침이 불변의 것이 아니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노키즈존' 혹은 '노키즈존'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연구의 사례로 삼기보다는, 해당 공간들의 등장 및 확산 자체를 새로운 공간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개인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양상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 비공식 현장 인터뷰, 문헌 연구, 현장 방문 등의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총 16명으로 그중 여성 양육자 6명,

미혼 여성 3명, 미혼 남성 1명이 심층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노키즈존' 출입 거부 경험이 있는 유자녀 여성들을 기본으로 하되, 그 외에 '노키즈존'과 관련된 경험이나 의견을 개진할 의지가 있는 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개인의 일상, 경험을 연구한다는 차원에서 여성 양육자의 사례가 일상 속 배제적 공간을 통한 통치의 양상을 잘 보여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층 인터뷰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연구참여자의 선호 및 코로나19 관련 제약을 감안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최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다. 심층 인터뷰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노키즈존'을 포함하여 공공장소에서 — 특히, 여성 — 양육자와 아동의 존재 및 이들에 대한 자신 및 타인의 인식, 경험, 의견 등을 공유하였다. 이 외에 문헌 연구를 위해서는 정책보고서, 신문 기사, 여론조사, 개인 블로그 및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등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노키즈존'을 둘러싼 온라인 담론을 보조적인 연구 자료로 삼았는데, 이는 '노키즈존'의 확산이 온라인상에 만연한 혐오 표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여성 양육자의 존재를 특정한 방식으로 표상하고 이를 힐난하는 의미를 내포한 표현인 '맘충'은 '노키즈존'을 정당화하는 담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인 인스타그램과 X(전 트위터), 개인 블로그 및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과 댓글을 사례로 활용하였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사용자의 성향, 주요 이용자의 성별 등이 소셜 미디어에 비해 비교적 뚜렷하게 구별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남성 사용자의 수가 많다고 알려진 커뮤니티 두 개(웹사이트 A, B)와 여성 사용자의 수가 다수라고 알려진 커뮤니티 두 개(웹사이트 C, D)를 선정하여, 해당 플랫폼들에서 '노키즈존' 관련 의견이 개진되는 방식, 혐오 표현 및 관련 담론이 전개되는 양상 등을 포착하고자 했다.

4. ‘노키즈존’의 등장과 확산: 배제하는 일상 공간과 온라인상 혐오 담론의 상호구성

오직 연령을 기준으로 특정 인구집단의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노키즈존’은 등장 시점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간 ‘노키즈존’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5] 미디어를 통해 드러난 찬성/반대 입장의 대립 등이 있었으나 지난 몇 년간 ‘노키즈존’은 증가해 왔고, 이를 반영하듯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꾸준히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 비율이 반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6] 하지만 통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여론조사는 단지 특정 사안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특정한 구조와 방향의 담론을 형성해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유도하는 효과를 갖는다. 여론조사에 사용되는 질문의 구조, 사용되는 표현들에 이미 특정한 사회정치적 관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소위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통계와 여론조사를 통해 다수의견이 과대대표되는 동시에 해당 논쟁의 기저에 있는 권력관계, 불평등의 문제는 비가시화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노키즈존’의 확산과 관련한 주된 논쟁의 구조를 밝히고, 나아가 온라인상에서 지속되는 혐오 담론과 배제하는 일상 공간의 상호구성을 드러냄으로써 공간적 권력이 구성되고 작동하는 양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노키즈존’의 사례에서 표면적으로 아동의 배제를 목표로 하는 공간적 실천의 정당성과 관련한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김도균·유보배, 2016). 첫째, ‘노키즈존’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이유들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노키즈’ 지침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주체는 누구이며, 통계 및 여론조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권리의 침해를 정당화하는가의 문제이다.

---

5)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 사건: 16진정0848200 상업시설 이용 시 나이 제한. 2017.09.25.

6) “[기획] 노키즈존에 대한 여론, 어떻게 변했을까?” 한국리서치, 2023.02.22.(https://hrcopinion.co.kr/archives/25853)

실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응답자 대부분이 '노키즈존'에 호의적이었으며, 해당 공간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및 공간을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보호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7] 전자의 근거는 자영업자가 특정 공간을 운영하는 목표는 수익이고, 따라서 스스로 해당 공간의 운영 방식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적으로 소유된 공공 공간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즉, 카페와 식당 등 대다수 '노키즈존'들은 개인이 소유/운영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은 공간의 소유/운영자로서 최소한의 제약으로 사업 운영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고객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이를 동반하지 않은 고객들이 아이를 동반한 고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불편 등의 방해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강조한다. 카페, 식당 등 준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노키즈존'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노키즈존'이 아동 혐오에 기반한 공간적 배제의 실천이라고 주장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 국내외의 비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노키즈존'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아동에 대한 혐오 및 차별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나아가 아동을 넘어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8] 그러나 이 같은 비판이 무색하게도 '노키즈존'은 꾸준히 확장되고 있으며, 이들이 주장한 대로 다양한 형태의 '노OO존'으로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노키즈존'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개인의 권리에 근거한 주장 앞에서 쉽게 무력해진다. 한 연구참여자의 아래와 같은 언급이 이를 잘 보여준다.

> 세상에 수많은 카페랑 식당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사람들이 왜 ('노키즈존'을)

7) "'노키즈존'은 차별인가, 권리인가? 아이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부모들'에 대한 불만 커 보여", 트렌드모니터. 2019.04; ≪중앙일보≫, 2019.06.12., "노키즈 존, 고객 '권리다' vs '차별이다'… 당신의 생각은?"

8) ≪쿠키뉴스≫, 2022.05.05., "노키즈존서 쫓겨난 어린이는 어떤 어른이 될까".

> 비판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그냥 영업상의 결정이잖아요. 손님들도 똑같이 다른 카페나 식당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연구참여자 10)

이와 같은 의견은 '노키즈존'이 자영업자 및 고객의 권리와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아동과 보호자가 '노키즈존'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와 자유라는 측면을 통해서도 정당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영업주와 아동을 동반한 또는 하지 않은 고객 모두의 개인적 자유와 권리가 여전히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노키즈존'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노키즈존'을 비판하는 것이 자영업자와 대다수 고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자영업자의 영업상의 권리 및 고객의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소수자 혹은 약자인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양육자들에게는 '노키즈존'이 아닌 다른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권리 또는 자유가 보장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권리 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처럼 편향된 권리 및 자유에 관한 담론, 사회적 인식이 정당화되는 과정은 한국 사회에서 특정 집단이 대중적으로 표상되는 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본 연구는 특정 집단—특히,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표상과 인식, 담론 등이 형성되고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통로로써 온라인 공간의 역할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오프라인 상의 '노키즈존' 확산을 허용하고 지속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 요소로서 '맘충'이라는 표현의 등장과 온라인상 혐오 담론을 꼽는다.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훈육하지 않는 일부 어머니를 비난하기 위해 쓰이는 '맘충'이라는 표현은 전술한 '김치녀', '된장녀'와 비슷한 젠더 호명의 정치를 드러내며 세 가지의 구체적인 효과를 갖는다. 첫째, '맘'이라는 단어 사용을 통하여 돌봄과 양육의 행위를 여성들(만)의 일로 축소시킨다. 둘째, 명확한 기준 없이 개인의 도덕적 판단에 따라 이상적 어머니상과 반드시 비난받아야 하는 '맘충'이라는 양극화된 여성상을 낳는다. 셋째, 이렇게 상반된 가치화는 여성들 사이 적대구조뿐 아니라 스스로의 자기검열을 야기한다.

한편 온라인 공간에서 '맘충' 담론은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직원이 자녀의 필요에 따라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자녀를 방관하는 어머니 고객에 대한 불만글을 작성하면 독자들이 댓글로 이를 동조하는 형태로 확산된다. 이 같은 게시글이나 댓글은 본질적으로는 파편화되어 있으나 '좋아요'나 '스크랩' 등 사이버 공간의 기능을 통해 확장된다. 그리하여 형성된 작성자, 독자, 그리고 제3의 플랫폼 이용자 간의 합의는 '맘충'이라는 표현의 무분별한 사용뿐 아니라 '노키즈' 지침의 당위성을 제공하는 바탕이 된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온라인 담론은 온라인,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터넷 사용자이자 카페, 식당 등 준공공 공간의 방문자로서 여성 양육자들의 자기검열을 야기할 뿐 아니라 카페나 식당 방문 자체를 망설이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 지점에서, 온라인 공간을 통한 '맘충'과 같은 혐오 표현의 일상화가 '노키즈존'이라는 오프라인 공간의 형성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할 표준화·정량화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해당 사례에 대한 적확한 접근 역시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에 만연한 혐오 표현이 개인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수치화할 수 없으며, '노키즈존'의 확산 및 지리적 분포 등을 증명하기 위한 정량적 접근 역시 유효하지 않다. 오히려 본 연구는 양적 접근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노키즈존' 및 '맘충' 담론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후술하겠지만, 오프라인에서 자신에 대한 혐오 표현을 직접 마주하게 되는 일은 흔치 않다. 그러나 여성 양육자에 대한 혐오가 온라인상에 만연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개인은 스스로의 행위를 규율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노키즈존'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 '노키즈존'에서 출입을 거부당한 경험은—'노키즈존'이라 특정된 공간을 넘어—타인을 마주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공공 공간 전반을 대하는 여성 양육자들의 인식, 일상적 실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노키즈존'의 등장 및 확산, '맘충' 담론과의 결합을 온라인-오프라인 연속체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공간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해

당 현상이 갖는 공간적·사회정치적 함의를 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오히려 강조되어야 할 지점은 해당 사회의 공공성 및 시민들 간의 사회성이 형성되는 주요한 장으로서 기존 연구들에서 간과되어 왔던 사적으로 소유된 공공 공간이 구성되는 일상적 과정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노키즈존'의 등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성 양육자들의 경험을 통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기존 지리학 논의에서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사용되어 왔던 공공성이 형성되는 장으로서 공공 공간 또는 공통의 것이 자본에 잠식당하는 현상을 비판하는 공공 공간의 사유화 등의 개념 및 논의가 갖는 현재적 유효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하다(김미영, 2017). 즉, 이상화되고 추상화된 형태의 공공 공간의 필요에 대한 주장(김준호, 2011)을 넘어, 공공성 및 사회성이 형성되는 일상의 리듬이 '업주의 재량', '고객의 권리' 등을 필두로 한 상업적 공간 및 자본의 논리에 잠식당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이 시급한 과제인 이유는 '노키즈존'의 등장이라는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의 양상과 갈래가 더욱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것으로 이미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혐오 및 공간적 배제는 사회의 소수자 및 약자에게 불균형적으로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여성 사용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웹사이트 A 및 소셜 미디어에서 아동과 함께 카페나 식당을 이용한 여성들이 스스로의 감정, 행동을 묘사한 게시글에서 이러한 측면이 잘 드러난다.

> 밥 먹을 때마다 밥이 입에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지 ㅎㅎ 빨리 5분만에 순삭하고 죄인처럼 후다다닥… 분위기도 그렇지만 그냥 내가 먼저 조심하게 됨 애가 그러던말던 방관하는 부모는 당연히 혐오 대상 아니야? ㅎㅎ (웹사이트 C 댓글 - 2023년 8월 21일)

> 노키즈존 보니까 진짜 슬프네 ㅜ 맘충이라는 단어가 난리나니까 나는 그런거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막상 내 애가 욕먹을까봐 결국은 외출을 포기하게 됨. (소셜 미디어 X 게시글 - 2021년 6월 8일)

이와 같은 게시글은 온라인 담론과 오프라인상 공간적 권력 및 배제의 상호 구성에 대해 일련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어머니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규율하거나 외출을 지양하는 행위를 '맘충'이라는 표현 및 '노키즈존'의 존재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둘째, 두 작성자 모두 스스로의 행동을 검열하면서도 '방관하는 부모'와 '맘충'의 존재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들이 '혐오 대상'임을 당연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맘충'과 '노키즈존' 관련 온라인 담론 속에서 아동을 동반한 여성들은 '맘충'이라 불릴 만한 어머니들을 비판함과 동시에 자신은 '맘충'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임의의 도덕적 잣대에 기반한 검열은 후술하듯이 오프라인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교수협의회 등의 요청에 따라 '노교수' 지침을 철회한 '노교수존'[9]의 경우와 달리 적극적·집단적으로 항의할 권력을 갖지 못한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들이 공간적 배제와 혐오 담론에 쉽게 노출되고, 이에 대한 그들의 대응 역시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혐오와 차별을 이미 주어진 사실로 받아들이고 내면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 내부의 인정투쟁이 촉발되는 것이다.[10] 온라인상 '맘충' 담론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공간적 권력의 효과를 발휘하며 '노키즈존'의 존재 자체가 여성들의 공공장소 이용을 제약하고 있음은 아래 글에서 더욱 잘

9) ≪한겨레≫, 2021.12.08., ""일반화 말아달라" 우려에…부산대 앞 술집, 'NO 교수존' 내렸다".

10) 물론, '노키즈존'에 대응하여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케어키즈존(Care Kids Zone)' 등 역시 확장되는 추세이며, 아동이 아닌 무책임한 보호자를 제재한다는 의미의 '배드패런츠존(Bad Parents Zone)'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노키즈존'이 아동혐오라는 지적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이들이 '노키즈존'의 공간적 통치성 자체에 저항하는 것인지 여부는 논쟁적이다. '예스키즈존'의 경우 '노키즈존'의 대안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양육자는 '노키즈존'이 아닌 다른 매장을 방문하면 된다는 통치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배드패런츠존'의 경우 방해받지 않을 고객의 권리를 우선시함과 동시에 여전히 아동의 주 양육자는 여성이며 이들이 '맘충'으로 호명된다는 사실을 비가시화할 뿐이기 때문이다.

확인할 수 있다.

> 저처럼 아이하고 밥 나눠 먹는 엄마는 흔할지 몰라도 아이 몫의 공짜밥을 요구하는 엄마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즉, 출현 빈도가 매우 낮은 '중증의 맘충'을 막기 위해 노키즈존을 설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카페나 식당에서 만나는 맘충은 바로 저 같은 보통의 엄마들입니다. 보통의 아이들은 시끄럽고, 그걸 저지하다 보면 보통의 엄마들이 더 시끄러워지죠. 노키즈존은 그런 보통의 엄마와 아이들을 막기 위한 장치일 뿐, 공짜밥 엄마나 아이 방치 엄마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 즉, '맘충=진상'이 아니라 '맘충=엄마'입니다. … 아이 데리고 식당에 오는 보통의 엄마들은 맘충이 되는 거고, 노키즈존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개념맘이 되기 위해서는 식당에 가질 말아야 합니다.[11]

이 글을 통해 '맘충' 담론, '노키즈존'의 존재 그리고 어머니들의 카페 및 식당 사용의 상관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 '맘충' 담론이 널리 퍼진 사회에서 어머니들의 정체성은 타인에 의해 언제든지 '맘충'으로 규정지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맘충'이라는 정체성이 강제된 어머니들을 배제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노키즈존'이 등장하며, 궁극적으로 어머니들의 카페, 식당을 포함한 (준)공공 공간 사용은 좌절된다. 다시 말해, 측정할 수 없는 도덕적 잣대를 기준으로 어머니들을 '맘충'이라고 진단하는 시선 자체가 권력이며 그러한 시선을 확장시키고 암묵적·명시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이 매개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을 통해 용인되는 '맘충' 담론은 오프라인에서 '노키즈존'이라는 공간을 통해 실천되며 궁극적으로는 여성 양육자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존재 자체와 움직임을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으로 제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공간 속 위치가 권력의 구도를 반영한다는 점(유성이, 2012)을 감안하였을

11) ≪한겨레≫, 2017.08.27.,"'맘충은 노키즈존에서 나가라'는 당신께".

때 어머니는 도덕적 진단의 시선, '맘충' 호명 그리고 '노키즈존'을 통한 공간적 배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온-오프라인의 경계와 관계없이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노키즈존'의 확산과 온라인상 혐오 표현 및 담론의 상호구성은 일상을 매개로 새롭게 등장하는 공간적 권력이 작동하는 양상을 온라인-오프라인 연속체라는 측면에서 사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게 배타적인 현실의 권력관계들이 가상 및 현실의 공간적 실천을 통해 구체화되고 정당화되는 통치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 및 소비자의 권리와 자유라는 특정한 형태의 권리/자유 담론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노키즈존'의 확산이라는 현상에 내재된 권력관계를 탈정치화한다. 이렇게 탈정치화된 공간적 권력은 일상적 공간의 의미와 운영 방식을 바꿀 뿐 아니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한 새로운 공간적 분리를 가능케 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오프라인 연속체를 매개로 확산되는 혐오와 차별, 공간적 배제의 경우 특히 소수자와 약자를 그 대상으로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자의적이고 한계가 정해지기 어려운 가혹한 도덕적 잣대가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혐오를 기반으로 하는 관점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행위에 관한 도덕적 잣대에 대한 합의가 만들어지기 어려우며, 이는 차별의 대상으로 하여금 가능한 최선의, 최대한의 방식으로 스스로의 행위를 검열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어질 여성 양육자들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5. 경험되는 '노키즈존': 경계 외부를 향하는 공간적 권력과 혐오/차별의 일상화

앞서 본 연구는 '노키즈존'의 공간적 권력이 물리적 공간의 생산, 여론조사 등에 더해 온라인/오프라인 공간의 상호구성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게 작동하는 양상과 그 잠재적인 확장 가능성 및 사회정치적 함의를 논의했다. 하지만 권

력은 각 개인들의 삶을 통해 살아지고 경험됨으로써 구체적인 형태와 효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노키즈존'을 경험한 여성들의 사례를 통해 이 새로운 공간적 권력이 실제 삶에서 — 특히, 여성들의 일상적 행위와 이동을 규율하는 데 있어서 — 갖는 효과를 논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노키즈존'을 통해 드러나는 권력은 기존 연구들에서 논의한 것과 달리, 섬세하고 의도적인 공간적 디자인이나 건축, 감시기술 등 권력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담보하는 전통적인 물리적 공간의 구성 없이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개인의 행위를 규율하는 일상의 공간적 실천으로서 '노키즈존'은 특정한 지리적 분포를 요하지 않으며, 대다수 형태의 영업장에서 운영자의 결정만으로 수행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혐오 담론의 주요 생산자인 인터넷 유저들 역시 온라인 공간상에 산재해 있어 배제적인 공간적 실천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성들로 인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노키즈존'이라고 명시된 공간뿐만 아니라 (준)공공장소 전체의 의미와 사용에 대해 재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공간적 권력의 새로운 변주에 주목할 필요를 제기한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맘충'과 관련한 담론은 공공장소에 아이를 동반한 여성이 보여야 할 모습 및 행위에 관해 매우 편협하면서 동시에 무제한적인 행위의 규율을 강제하는 도덕 관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념 있는 엄마'와 '맘충'을 구별한다. 그리고 이러한 젠더 권력의 위계는 온라인/오프라인 공간을 넘나들며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파고들어 꾸준히 재생산된다. 온라인 플랫폼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맘충'이라는 표현이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맘충'이라는 표현의 의미와 용법을 체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노키즈존'과 '맘충' 관련 담론이 구현하는 공간적 권력이 이미 여성들의 일상 속 깊이 침투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 중 여성 양육자들의 경우, '맘충'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지나친 자기검열과 의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였다. 이와 관련해 한 연구참여자는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사람들이 공공 장소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엄마들한테 엄청 뭐라고 하잖아요. 물론 소위 '맘충'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아이랑 밖에 나갈 때 엄청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아시다시피 5살짜리 남자아이를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게 사실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연구참여자 1)

이와 유사한 응답은 여러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크게 두 지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첫째, 여성 양육자를 포함한 연구참여자들 대다수는 '맘충'이 차별적인 표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맘충'의 존재는 인정함으로써 해당 용어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즉, '맘충'이라는 표현과 그 안에 내포된 혐오/차별적 지향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별개로, 여성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권력의 메커니즘으로써 '맘충'이라는 표현은 이미 이들의 일상과 언어 사용에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성 양육자들은 공공장소에서 스스로의 행위를 규율해야 한다는 암묵적이지만 동시에 명시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아이를 동반하지 않은 개인들이 일상에서 받는 압박의 정도를 훨씬 넘어선 수준으로 보였다. 실제로 많은 연구참여자들이 "맘충이 되고 싶지 않고 맘충이 되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한다"라고 공통적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앞선 절에서 인용한 한 여성 양육자의 내러티브와 공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온라인상 혐오 표현이 담지하는 권력의 효과는 이들이 '노키즈존'을 직접 마주하는 경험을 통해 더욱 구체화된다. 아래의 인터뷰는 자녀와 함께 '노키즈존'을 방문하게 된 여성 양육자들의 경험을 잘 보여준다.

언제였지, 이른 아침에 제 아들이랑 어떤 카페를 갔어요. 근데 '노키즈존'이라고 입장이 거부당한 거에요. 그래서 저는 안에 손님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도 그럼 테이크아웃만 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아마 알바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럼 아이를 밖에다가 두고 저만 들어와서 주문을 하라는 거에요. (연구참여자 3)

전술한 것처럼, ‘노키즈존’은 특정한 지리적 분포를 갖지 않고 산발적으로 존재하며, 또 많은 경우에 해당 공간이 ‘노키즈존’이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대다수 연구참여자들은 위와 같이 갑작스럽게 출입을 거절당한 경험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나아가 ‘노키즈존’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당한 경험은 여성 양육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향후에도 언제 어디서나 다시 거절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대다수 여성 양육자들이 ‘노키즈존’을 마주하게 되었던 순간을 “민망하고 답답한 경험”이라 묘사한 것을 보면, 해당 공간들이 여성들의 일상에 대한 인식 및 정서 자체에 창피함과 위축되는 느낌을 깊게 남겼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연구참여자는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한국 사회의 주류에 속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름 중산층이라고 할 만한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괜찮은 대학도 나왔고, 업계에서 나름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이제 결혼해서 가정도 꾸렸으니까. 근데 ‘노키즈존’을 딱 갔을 때, 처음으로 사회에서 배제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아이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 당황스럽기도 하고 모욕감도 들었고 그랬죠. (연구참여자 7)

이와 같은 정서적·감정적 경험은 여성들로 하여금 공공장소에서 스스로의 행위를 규율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자녀를 동반한 외출 자체를 지양하도록 만든다. 이와 관련해 한 연구참여자의 아래와 같은 응답은 주목할 만하다.

> 저는 사실 ‘노키즈존’에 찬성해요. 당연히 ‘노키즈존’이 있는 게 너무 좋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거부당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 그래서 차라리 표지판처럼 ‘노키즈존’이라고 잘 보이게 표시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8)

위와 같은 응답은 여성 양육자들이 '노키즈존'을 이미 일상의 자연스러운 혹은 피할 수 없는 일부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연구참여자의 경우 차라리 '노키즈존'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외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 양육자들이 이미 그들 스스로가 언제든 '맘충'이라고 불릴 수 있으며,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없는 '노키즈존'들에서 갑자기 입장이 거부당할 수 있는 현실을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위 연구참여자의 언급은 이러한 관점에서 '노키즈존'과 같은 젠더 권력의 공간적 표현에 맞서기보다는 차라리 그들 스스로 피할 수 있는 수준의 수동적인 변화를(만) 바라게 된 여성의 모습을 드러낸다. 물론, 이러한 수동적 태도를 일반화할 수 없으며, '노키즈존'과 관련한 경험에 대한 반응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롯한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심지어는 한 개인의 차원에서도 육아의 책임에서 해방된 순간만큼은 '노키즈존'을 방문하고 싶은 욕구가 존재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젠더 권력의 공간적 실천으로서 '노키즈존'의 확산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보다는 여성 양육자, 심지어는 나아가 여성 일반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향해 있으며, 해당 공간의 경계 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여성들이 '노키즈존'을 넘어 일상 속 (준)공공 공간에 대해 갖는 인식 자체에 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노키즈존'의 존재는 '맘충' 담론과 결합하여 여성 양육자들의 일상의 지리를 규율하는 공간적 권력의 등장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간적 권력의 작동 양상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향후 지리학 및 공간 정치 분야의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먼저, 해당 권력은 '노키즈존'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배제적인 공간을 물리적으로 생산해 내고 있는데, 이러한 공간적 실천으로 인한 통치의 효과는 그 경계가 물리적인 공간 내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배제의 대상이 되는 개인들이 스스로의 행위를 규율해야 하는 시공간적 범위 자체가 일상 전반에 걸쳐 있으며, 이들이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의 행위를 규율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는 앞 절에서 논의한 온라인-오프라인 연속체를 통해 작동하는 공간적 권력의 특성에 기인

하는 것이기도 하다. 혐오 담론을 양산하는 이른바 인터넷 유저들은 원자화된 개인인 동시에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편재성을 갖기 때문에 특정한 담론이 형성되어도 첫 발화자 및 발화 지점을 찾기가 어렵고, 따라서 해당 담론이 내포하고 있는 권력관계를 문제화하거나 저항할 방법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이나 쇼핑몰, 게이티드 커뮤니티 등 기존 사례들에서는 비교적 명문화된 또는 눈에 드러나는 형태로 개인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데 반해, 온라인 담론을 통해 구성되는 규범은 그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통치의 대상들로 하여금 항상 그들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와 방식으로 스스로의 행위를 규율하도록 유도한다.

이처럼 '노키즈존'을 통해 드러나는 공간적 권력은 추상적인 개념도, 온라인 공간에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공간들은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으로서 일상적인 공간이 갖는 의미와 그러한 공간을 운영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공간적 분리, 일상적 배제의 공간적 양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노키즈존'을 통해 구성된 공간적 분리의 양상은 일상 곳곳에 분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안내판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 민족 공동체(ethnic enclaves), 아파르트헤이트 등 기존 공간적 분리/배제의 양상과 구별된다. 후자가 영토를 분리하고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재생산하고자 한다면, 전자는 그러한 권력이 행사되는 경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노키즈존'은 개별화되어 있고, 산재해 있으며,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작은 문구에만 의존함으로써 개인의 일상적 실천이 해당 공간들의 외부에서도 끊임없이 규율되도록 한다. 이는 권력의 실천 방향이 물리적 경계를 넘어 외부로 향해 있는 공간적 권력의 등장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와 같이 외부로 향하는 공간적 권력은 온라인 공간의 혐오 담론과 결합해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편재성을 갖게 된다.

요컨대 '노키즈존'의 사례는 일상에 주목함으로써 공간적 권력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차별적/배제적인 통치의 전략,

공간적 실천이 일상의 평범한 공간들을 통해 보편화되고, 그로 인해 차별과 혐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사회적으로 탈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새로운 공간적 권력은 감시기술, 건축 디자인 등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물리적 공간의 구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온라인 공간의 담론 권력을 통해 작동함으로써 혐오, 차별, 배제 등의 문제에 대한 비판 및 문제 제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며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만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연속체를 통해 생산된 공간적 실천, 권력은 다양한 물리적·기술적 장치들을 동원해 특정 공간 내부를 규율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공간들은 내/외부, 온/오프라인, 공적/사적 영역의 모호한 경계를 따라 권력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경계 너머에서 작동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은 권력을 경험하는 개인들의 일상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식당이나 카페 등 사적으로 소유된 공공 공간들은 널리 알려진 통치의 공간들에 비해 사소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공간들을 통해 해당 사회의 사회정치적·문화적 특징이 흐르고 구성된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일상의 문화, 정치를 논의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일상의 준공공 공간들이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즉, 현재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공간적 권력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일상화·규범화하는 미시적인 공간들의 (의도되지 않은) 네트워크, 일상의 배제적 실천들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공간적 권력과 관련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발전시켜 최근 한국 사회에서 꾸준히 확산하고 있는 '노키즈존'의 사례를 분석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키즈존'은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권리 및 자유라는 특정한 형태의, 정치적인 권리 담론에 대한 대중적 지지에 더불어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확산하는 다양한 혐오 표현들의 담론 권력을 통해 그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전자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집단의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하는 통치 합리성을 정당화하였으며, 후자는 해당 인구 집단들에 대한 차별적/혐오적 인식을 널리 확산시킴으로써 '노키즈존'과 같은 배제적인 공간 실천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정치적 함의를 탈각시켰다. 둘째, 여성 양육자들의 경험을 통해 보았을 때, '노키즈존'의 공간적 권력은 특정 공간 내부에 한정되지 않고 편재되어 있다. 이는 식당, 카페 등 일상의 공간들이 지리적으로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맘충' 등 혐오 담론들이 주로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확산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처럼 전통적인 감시기술이 아닌 온라인-오프라인 연속체를 통해 행사되는 권력은 해당 공간의 물리적 경계 외부를 향해 행사되며, 이는 여성 양육자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행동을 상시적으로 검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동반한 외출 자체를 꺼리게 만들고 있었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상에 따라 변주하는 공간적 권력에 주목해 관련 논의를 환기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특히, 지리학/공간 연구들은 여전히 도시 정책, 거대 담론 혹은 비교적 경계가 뚜렷하고 눈에 잘 띄는 공간들에 대한 논의에 치중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상적 공간 및 미시정치 등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범한 공간들을 매개로 개인의 행위를 규율하는 권력의 실천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교묘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더욱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노키즈존'이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 개인이 갖는 여러 정체성들이 교차하는 지점들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혐오 및 차별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잘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하게 이러한 차별이 배제적인 공간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간적 권력은 더 이상 국가의 정책 또는 기업들이 조성하는 건조환경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디지털 담론 등 다양한 차원에서 행사되고 그 효과를 드러낸다. 이와 같은 권력은 일상이라는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의 행위 및 이동을 규율하는 하는데, 대다수 개인들의 삶이 불안정해져 가는 조건에서 이러한 공간 실천들이 내포하는 불평등은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한 모두의 일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 등장해 눈길을 끌었던 대학가의 '노교수존'들의 경우 교수협의회 등의 요청으로 해당 지침을 철회한 바 있는데, 이는 차별적인 공간적 실천이 언제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한 것처럼 여성 등 혐오, 차별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들의 삶, 경험에 입각한 질적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만이 공간적 권력이 산발적으로 행사되는 양상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공적/사적 영역, 온/오프라인, 내/외부 등 다양한 이분법적 공간 재현은 여전히 인식론적 관점에서는 유용할 수 있으나 이들의 경계를 따라 흐르고, 넘나들며, 따라서 모호하게 하는 권력의 실천에 주목할 때 현재 한국 사회에서 더욱 세밀해져 가는 혐오, 차별의 지형을 이해하고 나아가 저항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다른 두 공간적 범주의 상호구성을 통해 드러나는 권력이 사회정치적·문화적으로 무엇을 규범화하고 무엇을 배제하는지를 논의하는 후속 연구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통치 및 권력이 개인들의 일상에서 내재화되고, 체화되는 과정을 다룸으로써 탈정치화된 불평등을 다시 정치화하고,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사회적 부정의를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할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원고접수일: 2024.02.20.
1차심사완료일: 2024.03.12.
1차수정완료일: 2024.04.16.
2차심사완료일: 2024.05.22.
2차수정완료일: 2024.05.27.
3차심사완료일: 2024.05.27.
게재확정일: 2024.05.27.
최종원고접수일: 2024.05.28.

Abstract

Spatial power in disguise: 'No-Kids Zones' as a mask for propagating yet covert exclusion of mothers

Sangwon Chae · Jin Hee Lim

This study explores the subtle and elusive mode of power that operates in, by, and through everyday spaces by drawing on the case of 'No-Kids Zones' in South Korea. Over the last few years, Korea has seen the emergence and spread of 'No-Kids Zones': small hospitality businesses that deny the entry of children under a certain age based on the shopkeepers' entrepreneurial yet arbitrary decisions. The main argumen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No-Kids Zones' govern the everyday lives of individuals in ways different from traditional techniques of governing, such as CCTVs, spatial designs, and public polls. Instead, the spatial power of 'No-Kids Zones' manifests itself at micro-level, as a result of hate speech and discourse in cyberspace combined with the practice of spatial exclusion in everyday life. Second, in terms of the lived experiences, the spatial power of 'No-Kids Zones' works beyond its physical boundaries and extends outwards. Interviews conducted as part of this research show that women self-discipline their behaviours when they accompany their children to privately-owned public spaces (otherwise referred to as 'quasi-public space' in this research), indicating that the very existence of 'No-Kids Zones' restricts the mobility and behavior of female caretakers in public spaces. Altogether,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at, despite its name, it is the mothers who are stigmatized by 'No-Kids Zones', whose presence is governed by the fairly misogynistic on- and offline discourses concerning women's presence in and use of public space. Therefore, this research calls for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how discrimination, exclusion, and unequal power dynamics play themselves out through privately-owned public spaces and the online-offline continuum, which constructs the uneven geographies of the everyday.

Keywords: spatial power, 'No-Kids Zones', hate speech, online-offline continuum, public space

참고문헌

구지혜·김민철. 2023.「온라인 공간에서의 반페미니즘 담론에 관한 연구: GS25 남성혐오 논란과 음모론」. ≪아시아여성연구≫, 제62권 3호, 115~153쪽. DOI: 10.14431/jaw.2023.12.62.3.115

금혜성·송경재. 2013.「한국과 미국의 정치인 팬 커뮤니티 비교연구: 인터넷 팬덤의 정치적 효과를 중심으로」. ≪담론 201≫, 제16권 3호. 145~169쪽. DOI: 10.17789/discou.2013.16.3.006

김경민·정리나. 2023.「미디어를 통해 본 코로나19 시기 한-베 갈등과 혐오의 양상: 바인 미(Bánh mì) 사건과 아시아나 항공기 회항 사건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제33권 1호. 317~371쪽. DOI: 10.21652/kaseas.33.1.202302.317

김도균·유보배. 2016.「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이슈&진단≫, 제221호, 1~25쪽.

김리나. 2017.「메갈리안들의 '여성' 범주 기획과 연대: "중요한 건 '누가' 아닌 우리의 '계획'이다"」. ≪한국여성학≫, 제33권 3호. 109~140쪽. DOI: 10.30719/JKWS.2017.09.33.3.109

김미영. 2017.「현대 공공공간의 새로운 가능성 고찰」. ≪한국지리학회지≫, 제6권 3호, 455~463쪽. DOI: 10.25202/JAKG.6.3.11

김수아. 2015.「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연구≫, 제15권 2호. 279~317쪽. DOI: 10.21287/iif.2015.10.15.2.279

김수아·김세은. 2016.「'좋아요'가 만드는 '싫어요'의 세계: 페이스북 '여성혐오' 페이지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1권 2호. 5~44쪽.

김수아·최서영. 2007.「남성 정체성(들)의 재생산과 사이버 공간: 커뮤니티 게시판과 토론형 게시판의 비교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8호. 5~40쪽. UCI: I410-ECN-0102-2008-600-002626113

김수정·김예란. 2008.「사이버 공론장들의 젠더성과 담론구성의 특징」. ≪미디어, 젠더 & 문화≫, 제10호. 5~38쪽.

김준호. 2011.「공공공간에 대한 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시론: 거리노숙인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제21권 2호. 35~65쪽. UCI: G704-002076.2011.21.2.004

김해원·박동숙·이재원·정사강·강혜원·백지연. 2018.「5월 19일, 여성들은 혜화역에 어떻게 모였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의 의제화와 조직화 과정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26권 4호, 85~139쪽.

나은영·차유리. 2012.「인터넷 집단극화를 결정하는 요인들: 공론장 익명성과 네트워크 군중성 및 개인적, 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제26권 1호. 103~121쪽. UCI: I410-ECN-0102-2012-180-002974896

박근영·최윤정. 2014.「온라인 공론장에서 토론이 합의와 대립에 이르게 하는 요인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58권 1호. 39~69쪽.

설선미·배정아. 2021.「정책 담론의 장으로서의 트윗(tweet): 제21대 총선 이슈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1권 1호. 1~21쪽.

엄기호. 2014.『단속사회: 쉴 새 없이 접속하고 끊임없이 차단한다』. 창비.

오수경·양은별·김서현·정익중. 2023.「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노키즈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아동학회지≫, 제44권 4호. 361~373쪽. DOI: 10.5723/kjcs.2023.44.4.361

오찬호. 2018.『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블랙피쉬.

유성이. 2012.「수잔-로리 팍스의 〈비너스〉: 공간과 시선의 권력을 중심으로」. ≪현대영미드라마≫, 제25권 2호. 161~187쪽.

이병준·석영미. 2014.「카페, 연행적 공간, 그리고 한국인의 일상학습: 문화인지적 논의」. ≪인문학논총≫, 제35호. 217~240쪽.

장윤재. 2023.「뉴스 댓글은 왜 여론의 지표로 여겨지는가? 여론 추정 단서로서 댓글의 기능과 영향에 관한 고찰」.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9권 3호. 5~53쪽. DOI: 10.20879/ct.2023.19.3.005

장휘·송경호. 2021.「코로나19와 한국 민족주의의 분화: '국뽕' 유튜브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과 세계≫, 제39호. 89~128쪽. DOI: 10.35548/cw.2021.12.39.89

최미라. 2018.「한국사회의 도덕성과 도덕적 판단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Allen, J. 2006. "Ambient power: Berlin's Potsdamer Platz and the seductive logic of public spaces." *Urban Studies*, Vol.43, No.2, pp.441~455. DOI: 10.1080/00420980500416982

Argento, D., Grossi, G., Jääskeläinen, A., Servalli, S., and Suomala, P. 2020. "Governmentality and performance for the smart city."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ournal*, Vol.33, No.1, pp.204~232. DOI: 10.1108/AAAJ-04-2017-2922

Ash, J., Kitchin, R., and Leszcznynski, A. 2018. "Digital turn, digital geograph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42, No.1, pp.25~43. DOI: 10.1177/0309132516664800

Barry, A., Osborne, T., and Rose, N. 1996. *Foucault and Political Reason: Liberalism, Neo-liberalism and the Rationalities of Government*. Routledge.

Bell, D. 2007. "The hospitable city: social relations in commercial spac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31, No.1, pp.7~22. DOI: 10.1177/0309132507073526

Bondi, L. 1998. "Gender, class, and urban space: public and private space in contemporary urban landscapes." *Urban Geography*, Vol.19, No.2, pp.160~185. DOI: 10.2747/0272-3638.19.2.160

Bondi, L. and Domosh, M. 1998. "On the contours of public space: a tale of three women." *Antipode*, Vol.30, No.3, pp.270~289. DOI: 10.1111/1467-8330.00078

Booth, C., Darke, J., and Yeandle, S. 1996. *Changing Places: Women's Lives in the City*. London: Paul Chapman.

Certomà, C. 2015. "Expanding the 'dark side of planning': governmentality and biopolitics in urban garden planning." *Planning Theory*, Vol.14, No.1, pp.23~43. DOI: 10.1177/1473095213506202

Choi, Y. R. 2017. "The Blue Economy as governmentality and the making of new spatial rationalities."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Vol.7, No.1, pp.37~41. DOI: 10.1177/2043820617691649

Crampton, J. W., and Elden, S. 2007. *Space, Knowledge and Power: Foucault and Geography*.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Dean, M. 2010. *Governmentality: Power and Rule in Modern Society*. London: Sage.

Demetriou, O. 2016. "Counter-conduct and the everyday: Anthropological engagements with philosophy." *Global Society*, Vol.30, No.2, pp.218~237. DOI: 10.1080/13600826.2015.1133568

Elwood, S. 2006. "Negotiating knowledge production: the everyday inclusions, exclusions, and contradictions of participatory GIS research." *The Professional Geographer*, Vol.58, No.2, pp.197~208. DOI: 10.1111/j.1467-9272.2006.00526.x

_____. 2021. "Digital geographies, feminist relationality, Black and queer code studies: thriving otherwis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45, No.2, pp.209~228. DOI: 10.1177/0309132519899733

Elwood, S., and Leszczynski, A. 2013. "New spatial media, new knowledge politic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Vol.38, No.4, pp.544~559. DOI: 10.1111/j.1475-5661.2012.00543.x

_____. 2018. "Feminist digital geographies." *Gender, Place & Culture*, Vol.25, No.5, pp.629~644. DOI: 10.1080/0966369X.2018.1465396

Ettlinger, N. 2011. "Governmentality as epistemolog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101, No.3, pp.537~560. DOI: 10.1080/00045608.2010.544962

Garmany, J. 2010. "Religion and governmentality: Understanding governance in urban Brazil." *Geoforum*, Vol.41, No.6, pp.908~918. DOI: 10.1016/j.geoforum.2010.06.005.

Graham, M. 2013. "Geography/internet: ethereal alternate dimensions of cyberspace or grounded augmented realities?." The Geographical Journal, Vol.179, No.2,

pp.177~182. DOI: 10.1111/geoj.12009

Hine, C. 2008. "Virtual ethnography: modes, varieties, affordances." in N. Fielding, R.M. Lee and G. Blank (eds.). *The SAGE Handbook of Online Research Methods*. Sage, pp.257~270.

Huang, G., Xue, D., and Wang, Y. 2019. "Governmentality and spatial strategies: Towards formalization of street vendors in Guangzhou,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43, No.3, pp.442~459. DOI: 10.1111/1468-2427.12730

Huxley, M. 2006. "Spatial rationalities: order, environment, evolution and government." Social & Cultural Geography, Vol.7, No.5, pp.771~787. DOI: 10.1080/14649360600974758

_____. 2008. "Space and government: governmentality and geography." *Geography Compass*, Vol. 2, No.5, pp. 1635~1658. DOI: 10.1111/j.1749-8198.2008.00133.x

Johnson, J. L and Johnston, K. (eds.). 2019. *Maternal geographies: Mothering In and Out of Place*. Bradford, Ontario: Demeter Press.

Kern, L. 2021. *Feminist City: Claiming Space in a Man-made World*. London: Verso.

Kohn, M. 2004. *Brave New Neighborhoods: The Privatization of Public Space*. London: Routledge.

Koopman, C. and Matza, T. 2013. "Putting Foucault to work: analytic and concept in Foucaultian inquiry." *Critical Inquiry*, Vol.39, No.4, pp.817~840. DOI: 10.1086/671357

Lemke, T. 2002. "Foucault, governmentality, and critique." *Rethinking Marxism*, Vol.14, No.3, 49-64. DOI: 10.1080/089356902101242288

_____. 2007. "An indigestible meal? Foucault, governmentality and state theory." *Distinktion: Scandinavian Journal of Social Theory*, Vol.8, No.2, pp.43~64. DOI: 10.1080/1600910X.2007.9672946

Leszczynski, A. 2019. "Digital methods II: digital-visual method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43, No.6, pp.1143~1152. DOI: 10.1177/0309132518787997

McDowell, L. 1999. *Gender, Identity and Place: Understanding Feminist Geographi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erry, S. E. 2001. "Spatial governmentality and the new urban social order: controlling gender violence through law." *American Anthropologist*, Vol.103, No.1, pp.16~29. DOI: 10.1525/aa.2001.103.1.16

Mitchell, D. 1995. "The end of public space? People's Park, definitions of the public, and democrac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85,

No.1, pp.108~133. DOI: 10.1111/j.1467-8306.1995.tb01797.x

Moisio, S. and Luukkonen, J. 2015. "European spatial planning as governmentality: an inquiry into rationalities, techniques, and manifest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Vol.33, No.4, pp.828~845. DOI: 10.1068/c13158

Németh, J., & Schmidt, S. 2011. "The privatization of public space: modeling and measuring publicness."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Vol.38, No.1, pp.5~23. DOI: 10.1068/b36057

Odysseos, L., Death, C. and Malmvig, H. 2016. "Interrogating Michel Foucault's counter-conduct: theorising the subjects and practices of resistance in global politics." *Global Society*, Vol.30, No.2, pp.151~156. DOI: 10.1080/13600826.2016.1144568

Peake, L. and Rieker, M. 2013. *Rethinking Feminist Interventions into the Urban*. London: Routledge.

Perry, R. W. 2000. "Governmentalities in city-scapes: introduction to the symposium." *Political and Legal Anthropology Review*, Vol.23, No.1, pp.65~72.

Pow, C. P. 2013. "Consuming private security: consumer citizenship and defensive urbanism in Singapore." *Theoretical Criminology*, Vol.17, No.2, pp.179~196. DOI: 10.1177/1362480612472782

_____. 2018. "Building a harmonious society through greening: ecological civilization and aesthetic governmentality in China." *Annal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Vol.108, No.3, pp.864~883. DOI: 10.1080/24694452.2017.1373626

Raco, M. and Imrie, R. 2000. "Governmentality and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urban policy."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32, No.12, pp.2187~2204. DOI: 10.1068/a3365

Robins, S. 2002. "At the limits of spatial governmentality: a message from the tip of Africa." *Third World Quarterly*, Vol.23, No.4, pp.665~689. DOI: 10.1080/01436590220000005328

Rose, N. 1999. *Powers of Freedom: Reframing Polit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se, N., and Miller, P. 1992. "Political power beyond the state: Problematics of government."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43, No.2, pp.173~205. DOI: 10.2307/591464

Rose-Redwood, R. S. 2006. "Governmentality, geography, and the geo-coded world."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30, No.4, pp.469~486. DOI: 10.1191/0309132506ph619oa

Roy, A. 2009. "Civic governmentality: the politics of inclusion in Beirut and Mumbai." *Antipode*, Vol.41, No.1, pp.159~179. DOI: 10.1111/j.1467-8330.2008.00660.x

Törnberg, P. and Uitermark, J. 2020. "Complex control and the governmentality of digital platforms." *Frontiers in Sustainable Cities*, Vol.2, No.6, DOI: 10.3389/frsc.2020.00006.

Tulumello, S. 2016. "Reconsidering neoliberal urban planning in times of crisis: urban regeneration policy in a "dense" space in Lisbon." *Urban Geography*, Vol.37, No.1, pp.117~140. DOI: 10.1080/02723638.2015.1056605

Uitermark, J. 2005. "The genesis and evolution of urban policy: a confrontation of regulationist and governmentality approaches." *Political Geography*, Vol.24, No.2, pp.137~163. DOI: 10.1016/j.polgeo.2004.07.009

Vanolo, A. 2014. "The smart city as disciplinary strategy." *Urban Studies*, Vol.51, No.5, pp.883~898. DOI: 10.1177/0042098013494427

Voyce, M. 2003. "The privatisation of public property: the development of a shopping mall in Sydney and its implications for governance through spatial practices." *Urban Policy and Research*, Vol.21, No.3, pp.249~262. DOI: 10.1080/08111140320000113644

Voyce, M. 2006. "Shopping malls in Australia: the end of public space and the rise of 'consumerist citizenship'?" *Journal of Sociology*, Vol.42, No.3, pp.269~286. DOI: 10.1177/1440783306066727